

저출생 대응 주요과제 추진현황 점검

2025. 5. 29

관계부처 합동

순 서

I. 최근 저출생 대책 주요 이행실적	1
----------------------------	---

II. 저출생 대응 주요 과제 추진현황	2
-----------------------------	---

1. 결혼·출산 등에 대한 부정적 용어 정비	2
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	---

2. 금융권 저출생 대응 상품 주요 사례	4
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	---

3. 정책공모전·국민WE원회 운영 현황 및 계획	9
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	---

I. 최근 저출생 대책 주요 이행실적

◇ 5월에도 **국민생활과 밀접한 사안** 중심으로 **既발표 과제 후속조치** 지속

- ① 다자녀 가구 공항 패스트트랙 도입을 위한 출입국절차간소위원회 개최(5.9~5.15일) 등 사전 절차 완료 → 6.10일부터 시행 **10차 회의 후속조치**

공항별 패스트트랙(우선출국 서비스) 이용 대상

현 행		개 선
인천공항	유·소아(만7세 미만) 등 교통약자와 동반객, 사회적기여자 등	⇒ 3자녀 이상 다자녀가구* 추가 * 자녀 전원이 만 19세 미만& 부모 자녀가 각각 최소 1인 이상 동행
김포·김해·제주공항	유·소아(만24개월 미만) 등 교통약자와 동반객, 사회적기여자 등	

- ② 돌봄 공백 해소를 위해 인근 지역의 유아까지 포함하여 수요 맞춤형 돌봄서비스¹⁾를 제공하는 거점형 돌봄기관 총 52개소²⁾ 지정·운영(5.9)

1) 학부모 수요가 높은 아침(7:00~8:30), 저녁(17:00~), 주말 돌봄 등

2) 돌봄기관 부족, 낮은 지리적 접근성으로 인해 돌봄 이용이 어려운 지역 중심으로 지정
→ 서울 3, 부산 5, 광주 15, 대전 2, 울산 6, 경기 8, 충남 3, 전북 3, 경북 1, 경남 2, 제주 4개소

- ③ 공동주택 내 어린이집 설치가 보다 원활히 추진되도록 입주예정자 동의 기준을 완화(50→80% 이상)하는 내용의 「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」 개정 (4.15)

- ④ 다자녀 가구(2자녀 이상) 대상 전국 48개 국립자연휴양림 주차료 (중소형3천원, 대형5천원) 면제 시행(5.22) **8차 회의 후속조치**

- ⑤ 입양대상아동의 초기보호체계를 기관 개별보호에서 국가·지자체 중심체계로 전환하기 위한 법적 기반 마련 완료(5.14)*

* 입양 국가책임제 도입(국내입양특별법, '25.7.19 시행)에 맞추어 관련 하위법령 개정

※ 입양특례법 시행령·시행규칙, 아동복지법 시행령 공포안('25.7.19 시행) 주요내용

-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관계부처 협조를 거쳐 국내입양 활성화 기본계획 수립 필요
- ② 시·도지사 등은 입양 전 아동 후견인 역할 수행 + 아동 양육환경 점검 필요
-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양부모가 될 자의 자격 확인을 위해 가정·직장·이웃 조사 필요

Ⅱ. 저출생 대응 주요 과제 추진 현황

1. 결혼·출산 등에 대한 부정적 용어 정비

1 그간의 경과

- 출산·육아 관련 일부 용어*가 결혼·출산 등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강화할 수 있다는 문제 제기 (국민WE원회, 일부 민간기업 등)
 - * 육아휴직('휴직'이 '쉬고온다'는 부정적 인식), 경력단절여성('단절'의 부정적 의미 + 돌봄을 노동으로 인정하지 않음), 미숙아(서투르고 부족하다는 인식) 등
 - * 포스코 사례: '육아휴직'→ '육아몰입기간'으로 명칭 변경('24.7.~)
- 법제처에서 사회 인식 개선을 위해 결혼·출산 등에 대한 부정적 의미가 있는 용어 발굴·정비 추진방안 마련 ('25.3.11.)
- 관계부처, 출연 연구기관, 산하기관 등을 중심으로 개선이 필요한 법령·생활용어 발굴 (저고위·법제연, 3월~5월)
 - * (관계부처) 고용부, 교육부, 복지부, 여성부, 문체부 등
 - (연구기관) 국립국어원, 한국보건사회연구원, 육아정책연구소, 한국여성정책연구원 등
 - (산하기관) 아동권리보장원, 한국보건복지인재원, 한국건강가정진흥원 등

2 주요 사례 및 개선방향 검토(안)

- 광범위한 법령 검토, 각계 의견수렴 등 통해 결혼·출산 관련 부정적 용어, 사회적 편견을 담은 법령용어를 발굴하고 개선방안 검토 중

【 법령용어 개선안 예시 】

현재 용어	대안 용어(안)	개선 필요성	해당 법령
육아휴직	▶ 육아몰입기간 ▶ 아이돌봄기간	'쉬고 온다'는 어감에 따른 부정적 인식이 실제 제도 활용에 걸림돌로 작용	남녀고용평등법
경력단절여성	▶ 경력전환여성	이전의 경험과 실력을 잃어 회복하기 어렵다는 부정적 인식을 줄 수 있음	여성경제활동법
미숙아	▶ 이른둥이 ▶ 조산아	서투르고 부족하다는 인식과 가치 판단이 담겨있는 용어	모자보건법, 근로기준법
난임치료휴가	▶ 임신준비기간 ▶ 희망출산휴가	개인의 결핍·실패로 느껴질 수 있는 '난임치료'보다 임신·출산 가능성에 초점을 둔 용어 필요	남녀고용평등법
부녀, 부녀자	▶ 여성	여성만을 대상으로 혼인여부 구분 등 차별적 요소	소득세법 등
학부모	▶ 보호자 ▶ 양육자	조손가족 위탁가정 등 다양한 가족 배경의 자녀들에게 소외감, 차별적 작용 가능성	공교육정상화법
치매	▶ 인지증 ▶ 인지저하증	질병에 대한 사회적 편견을 담은 용어로, 환자에 대한 비하·낙인감 유발	치매관리법 등

- 다만, 법령용어 변경으로 인한 현장의 혼란, 광범위한 기존 양식·자료 변경* 등으로 즉시 개정 추진이 곤란한 경우, 단계적 접근

* 신청서 등 각종 서식 변경, 누리집 설명문 및 첨부파일 교체 등

- (1단계) 우선, 대안용어 병기* 또는 현장에서 쓰이는 사업·기관명 변경**

* '육아휴직' → '육아몰입기간(육아휴직)'

** 남녀고용평등법에서는 '대체인력'이라는 용어를 사용 중이나, 대체인력을 알선하는 사업의 명칭을 '대체인력뱅크' 대신 '인재채움뱅크'로 변경

- (2단계) 현장에서 대안 용어가 착근되는 상황을 살펴 적절한 시기에 법령 개정 추진

- 법령용어뿐만 아니라, 결혼·출산·육아에 대해 부정적 인식을 줄 수 있거나 차별적 요소가 있는 일상생활 용어도 발굴하여 개선 추진

【 생활용어 개선안 예시 】

현재 용어	대안 용어(안)	개선 필요성
시댁	▶ 시가 ▶ (배우자) 본가 (부부 공통)	여성만 남편의 본가를 높이게 되는 차별적 요소 (남성은 아내의 본가를 '처가'라 호칭)
집(안)사람, 바깥사람	▶ 배우자	여성은 집안에서, 남성은 집밖에서 일한다는 관점으로 성 역할 고정관념을 강화하는 표현
수유실	▶ 아기 휴게실 ▶ 영유아 돌봄실	수유 외의 다양한 돌봄과 엄마뿐만 아니라 아빠·동반가족 이용을 포괄하는 공간임을 나타낼 필요
유모차	▶ 유아차 / ▶ 영유아차	주 양육자를 엄마로 제한하는 차별적 요소

3 향후 계획

- 대국민 설문조사 실시 (6월, 약 2주간)
- 관계부처와 함께 정비 대상 용어 및 개선안 확정 (7월)
- 법령 개정 추진 및 대국민 캠페인 실시 (7~9월)
 - 법제처는 개선안을 기준으로 현행법령 전수조사 및 법령별 정비안 마련* 하고, 개정 법률안은 국회 제출, 하위법령은 각 부처 개정작업 지원
 - * 입법예고, 법령심사 등 법령 개정 추진하되, 신속한 정비를 위해 법률 개정이 불필요한 하위법령 우선 추진
 - 저고위에서는 보도자료 배포 및 지자체 등 관계기관 협조 요청을 통한 인식 환기, 국립국어원 등 관계기관에 전달하여 활용토록 유도 등* 추진
 - * 예: 표준국어대사전(국립국어원), 네이버 사전 등에 비판적 설명을 추가, 「공문서 바로쓰기 지침」(국립국어원)에 반영하여 보도자료, 공문 등부터 개선 유도

2. 금융권 저출생 대응 상품 주요 사례

1 주요 현황

※ 상세 금융상품 사례는 별첨

① 생애주기 단계별로 필요한 혜택을 담은 맞춤형 금융상품 운영

- ① **(결혼)** 결혼 시 1~3%p 우대금리를 제공하는 적금 상품이 대표적이며, 일부 상품은 웨딩·신혼여행 비용에 대한 캐시백 혜택도 제공
 - BNK부산은행의 「너만솔로 적금」은 결혼 시 금리 2%p를 우대하고, 신혼집 마련 등을 위해 주택자금 대출까지 받은 경우 1%p 추가 우대
 - JB전북은행의 「JB행복결혼적금」은 예비부부에게 웨딩·신혼여행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, 제휴업체 이용 시 결제금액 2% 캐시백 지급
- ② **(임신·출산)** 임신·출산 계기 1~3%p 적금 우대금리 제공과 함께, 일부 금융회사는 출산 시 현금지급 형태의 직접 지원도 실시
 - 우리은행은 '24년 출생자녀를 둔 고객이 자녀명의로 계좌 개설 시, 해당 계좌로 출생축하금 5만원 지급('24.7~'25.5월)
 - 한화손보는 업계 최초로 최대 900만원(첫째 100만원, 둘째 300만원, 셋째 500만원)까지 출산 지원금을 지급하는 여성 건강보험 상품 출시('24.11월~)
- ③ **(양육)** 정부지원금 수령과 연계하여 최대 22%p의 우대금리를 제공하고, 보험료 할인, 육아휴직시 보험료 납입유예 등 생활밀착형 지원도 포함
 - 신한·농협·기업·iM·광주·전북은행 등은 해당 은행에 부모급여·아동수당 입금 계좌를 보유한 경우 적금 금리 우대(0.2%p~2.2%p)
 - 주요 보험사는 미성년 자녀 동승 시 운전자의 안전운전 경향이 높아지는 점을 반영하여, 자동차보험료 자녀할인 적용(0.8~21.3%)
 - 미래에셋·홍국생명·메리츠화재 등은 출산·육아휴직자의 경제적 부담을 고려하여, 1년간 보험료 납입 유예 특약 제공

【 결혼·임신·출산·양육 지원 금융상품 주요 사례 】

구분	상품명	주요 내용
결혼	BNK부산은행 너만솔로 적금(결혼)	· 적금 가입기간 중 결혼 시 2%p 우대 · 주택담보대출 또는 전세자금대출 시 1%p 우대 등 * 최고 연 7%(기본금리1.9%), 가입기간 1~3년, 월 30만원 한도
	신한다동이 상생적금	· 결혼·임신·난임·출산 시 1%p 우대 · 미성년 2자녀 1.5%p, 3자녀 이상 2.5%p 우대 * 최고 연 8%(기본금리2.5%), 가입기간 1년, 월 30만원 한도, 10만좌 한정
	JB행복결혼적금	· 결혼 관련 우대서비스 제공 - 웨딩관련 전문상담 및 맞춤서비스 제공, 제휴업체 웨딩상품·서비스 결제시 2% 캐시백 - 신혼여행서비스 제공, 제휴여행사 여행경비 결제금액의 2% 캐시백 - 결혼자금 신용대출시 적금 납입기간에 따라 연 0.5%까지 이율 감면 - 전세자금대출시 적금 납입기간에 따라 연 0.3%까지 이율 감면 * 최고 연 2.45%(가입기간별 기본금리1.55~2.1%), 가입기간 6개월~5년
임신 출산	하나아이키움 적금	· 임신부 또는 양육수당 입금 시 2%p 우대 · 아이 미래지킴 서약 시 1%p 우대 · 미성년 2자녀 1%p, 3자녀 이상 2%p 우대 등 * 최고 연 8%(기본금리2%p), 가입기간 1년, 월 30만원 한도, 5만좌 한정
	우리은행 출생축하금	· 2024년생 계좌 개설시 출생축하금 5만원 지급 · 2019년 이후 출생시 우리아이행복 바우처 최대 2만원 지급
	한화손해보험	· 한화 시그니처 여성 건강보험 3.0 ('24.11월~) - 출산 횟수별 지원금(첫째 100만원, 둘째 300만원, 셋째 500만원) 지급 - 임신·출산 입원비 보장 - 제왕절개 수술비 보장
양육	NH아동수당 우대적금 (만 7세 미만)	· 형제자매 동시가입 시 0.5%p 우대 · 셋째 이상 아동 1.0%p 우대 · 아동수당 입금 시 1.5%p 우대 등 * 우대금리 최고 3.5%p, 가입기간 1~3년, 월 10만원 한도
	IBK부모급여 우대적금	· 부모급여 또는 아동수당 입금 시 2%p 우대 · 한부모가족 지원 1%p 우대 등 * 최고 연 6.5%(기본금리2.5%), 가입기간 1년, 월 50만원 한도
	KJB아이키움 적금Ⅱ	· 아동수당 또는 양육수당 입금 시 최대 연 2.2%p 우대 * 최고 연 5%(5년제 기본금리 2.5%), 가입기간 1·2·3·5년, 월 20만원 한도
	미래에셋생명	· 민생안전보험료 납입유예특약 - 출산·육아휴직(단축근무 포함)·실직3대중대질병 시 1년간 보험료 납입유예
	흥국생명	· 보험료납입유예특약 - 출산·육아휴직·실직·3대중대질병 진단시 1년간 보험료 납입유예

② **난임부부, 다자녀 가구는 가계부담을 고려하여 더욱 두텁게 지원**

- ① **(대출금리 감면)** 적금 금리우대에 더해 대출금리 감면 혜택 제공
 - 기업은행의 「힘내라 우리가족대출」은 난임부부에는 0.5%p, 다자녀 가구(2자녀 이상)에는 0.6%p 감면 등 최대 0.8%p까지 대출금리 인하
 - 우리·하나·SC제일은행 등은 주택담보대출·전세자금대출 시 다자녀 가구(자녀 수 기준은 금융회사별 상이)에 금리 0.1~0.2%p 감면
- ② **(난임보장 강화)** 보험업계는 최근 결혼연령 상승, 난임시술 증가 추이 등을 감안하여 특약 등 형태로 난임치료 보장 강화 추세
 - 한화손보는 업계 최초로 가임력 보존서비스(난자동결), 난임치료 후 산후관리지원 등을 보장하는 「시그니처 여성 건강보험」 출시('23.7월~)
 - ABL생명보험은 난임진단→난임치료→난임치료 후 출산 시 산후 관리 지원까지 여성의 난임치료 쏠 과정을 보장하는 상품 판매
- ③ **(다자녀가구 우대)** 적금 상품은 최대 4%p까지 우대금리를 제공하고, 다자녀가구에 특화된 각종 보험료 할인 혜택도 추가
 - KB국민은행의 「KB아이사랑적금」은 자녀 1명 당 1%p씩 최대 4%p까지 금리 우대
 - * 기본금리 2% + 4자녀 +4%p + 아동수당 입금 +3%p → 연이율 9%
(기타 한부모가족 등 요건 해당시 최대 연이율 10.0%)
 - 삼성생명의 「인생금융 대출안심보험*」은 다자녀 가구(2자녀 이상)에 대해 보험료 20% 할인
 - * 대출을 보유한 가입자가 사망·질병 등 보험사고 발생 시 보험금으로 대출금을 상환
 - 현대해상·흥국화재 등은 어린이보험 상품 판매 시 다자녀 가구(2자녀 이상)에 대해 보험료 1~5% 할인

【 난임부부, 다자녀 가구 지원 금융상품 사례 】

구분	상품명	주요 내용
난임·다자녀	IBK기업은행 힘내라 우리가족대출	- 난임·신혼부부 및 다자녀가구 대상 최대 0.8%p 금리 우대 (난임부부 0.5%p, 2자녀 이상 0.6%p 등) * (한도) 3천만원, 다자녀가구 5천만원, (기간) 최장 15년
난임	한화손해보험	- 한화 시그니처 여성 건강보험 ('23.7월~) - 난임치료 보장, 출산 후 5년 내 중대질환 보장 강화, 난임치료 후 산후관리 지원금 지급, 난소과다자극진단비(난임치료 부작용) 보장, 여성생식기탈출 치료비 보장
	ABL생명보험	- 여성 난임관련 상품 3종 - 난임 진단특약(난임 진단시 지급) - 난임치료특약(인공수정, 체외수정 등 난임 치료시 지급) - 난임치료후산후관리지원특약(난임치료 후 출산시 산후관리지원금 지급)
다자녀	KB아이사랑적금	- 임신 또는 자녀 1명당 1%p (최대 4%p) 우대 - 아동수당 입금 시 3%p 우대 - 한부모가족 지원 등 1%p 우대 * 최고 연 10%(기본금리2%), 가입기간 1년, 월 30만원 한도, 5만좌 한정
	신한다둥이 상생적금	- 결혼·임신·난임·출산 시 1%p 우대 - 미성년 2자녀 1.5%p, 3자녀 이상 2.5%p 우대 - 부모급여·영아·육아·아동수당 등 입금 시 1%p 우대 등 * 최고 연 8%(기본금리2.5%), 가입기간 1년, 월 30만원 한도, 10만좌 한정
	하나아이키움 적금	- 임산부 또는 양육수당 입금 시 2%p 우대 - 아이 미래지킴 서약 시 1%p 우대 - 미성년 2자녀 1%p, 3자녀 이상 2%p 우대 등 * 최고 연 8%(기본금리2%p), 가입기간 1년, 월 30만원 한도, 5만좌 한정
	경남은행 Hi baby적금	- 출산 시 2%p 우대 - 미성년 2자녀 1.5%p, 3자녀 이상 2%p 우대 - 부모급여·아동·양육수당 등 입금 시 2%p 우대 등 * 최고 연 8%(기본금리1.45%), 가입기간 1년, 월 30만원 한도, 1만좌 한정
	삼성생명	- 삼성 인생금융 대출안심보험 - 자녀 2인 이상인 계약자에게 보험료 20% 할인
	흥국화재	- 무배당 흥Good 플러스 맘편한 자녀사랑보험 - 자녀가 2명인 경우 1%, 3명 이상인 경우 5% 할인 - 무배당 흥Good The건강한 0550 종합보험 5세 이상의 자녀가 있는 경우 영업보험료 2% 할인, 추가로 자녀 가입시 자녀의 영업보험료 3% 할인(최대 자녀 2명까지)
	현대해상	- 어린이보험 다자녀가구 할인 - 자녀가 2명인 경우 1%, 3명 이상인 경우 3% 할인 - 자동차보험 '효도하는 자녀 할인특약' 1자녀 1~14% 할인 및 2자녀 이상 3~16% 자동차보험료 할인

2 평가 및 시사점

① 저출생 위기 극복을 위한 금융권 역할 지속 확대

- 최근 금융회사는 사내복지와 사회공헌 활동을 넘어, 국민생활과 밀접한 금융상품 자체를 저출생 대응 수단으로 적극 활용 중
 - 목돈 마련 지원을 위해 결혼·출산 등 계기 우대금리를 제공하는 적금 상품이 가장 대표적이며, 대출·보험 등으로도 확장 추세
- 특히, 보험업계는 난임치료 지원, 출산축하금 지급 등에 대한 맞춤형 상품을 통해 임신·출산 관련 보장범위를 획기적으로 확대*

* 보험업계는 저출생 대책의 일환으로 '임신·출산에 대한 보장 강화' 방향 발표('24.8)

② 가계중심 지원에서 기업 지원까지 포괄하는 외연 확장 필요

- 현재 출시된 저출생 대응상품은 대부분 가계지원 중심으로 일·가정 양립의 중요한 주체인 기업대상 금융 지원은 아직까지 제한적
- 기업의 가족친화경영(EFG) 확산을 실질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다양한 기업대상 금융 상품* 개발 노력 확대 필요

* 예) 가족친화인증기업 대출금리 감면·한도 상향 등 가족친화경영지표의 여신평가 포함 검토

③ 정부 자산형성 지원사업에도 결혼·출산 연계 인센티브 설계 검토

- 정부는 다양한 자산형성 지원정책을 운영하고 있으나, 결혼·출산과 연계된 우대 제도는 부재
- 청년층 자산형성 노력이 결혼·출산 결정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금융권 사례를 참고하여 정책지원 사업에도 결혼·출산 연계 혜택* 도입 검토

* 예) 결혼 또는 출산 시 금리우대, 월 납입한도 확대, 정부기여금 매칭비율 상향

3. 정책공모전 · 국민WE원회 운영 현황 및 계획

1 국민과 함께 만드는 정책 공모전

- **(목적)** 정책 수요자인 국민의 실제 요구 반영한 저출산·고령화 정책 발굴
- **(‘24년 공모전 성과)** ▲ 저출생 정책제안 공모, 총 2,196개 제안 접수
 ▲ 우수제안 36개 선정 ⇒ 다수의 우수 제안 『저출생 추세 반전 대책(‘24.6월)』 반영 후 정책으로 실현

【 ‘24년 공모전 제안 정책반영 대표 사례 】

제안 아이디어	정책 반영 내용
· 신혼부부 출산 브릿지 임대주택 NH 임대주택 입주 후 출산 시 더 넓은 평형으로 이주, 자녀 수에 따른 계약기간 연장	· 공공임대 출산가구 재계약·평형 상향지원 (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 개정) 자녀 성년까지 소득·자산 무관 재계약, 넓은 평형으로 이주지원 → ‘25.3월부터 시행
· 전국민 정책 모니터링단 전국민 정책 모니터링단 모집, 정책평가, 성과점검, 정책 아이디어 발굴	· 저출생대응 ‘국민WE원회’ 구성·운영(‘24.10월) 청소년, 청년, 난임부부, 양육부모 등 총 200명 규모, 정책평가·성과점검·개선 및 추가 과제 발굴
· 유아동반 배려 주차공간 임산부 및 영유아 동반가족 대상	· 영·유아 동반가족 및 임산부 주차 우대 규정 신설(주차장법 개정) → ‘25.1월부터 시행

- **(‘25년 공모전 성과)** ▲ 고령화 분야 및 중고등부 부문 신설, 총 3,639개의 저출생·고령화 제안 접수 ▲ 우수제안 31개 선정 ⇒ 제5차 저출산·고령사회기본계획 반영 검토

【 ‘25년 공모전 우수제안 】

수상부문	제안 아이디어
대상	효 포인트 - 봉사활동 등을 통해 적립한 포인트를 본인·부모 돌봄 서비스에 활용
최우수상	맘택시(MomTaxi) - 육아용품 전용 배치 택시 서비스
	고령자 맞춤형 디지털 안내판 - 큰글자 터치스크린 기반 음성안내 전광판 표시 속도조절 기능
	청년 자영업자를 위한 육아휴직급여 - 출산 전 납부한 보험료를 출산 후 환급받는 제도
	육아휴직 급여 대리수령 제도 - 부모가 육아휴직이 불가 시 돌봄 제공 친족(무직)이 대리수령

- **(목적)** 제5차 저출산·고령사회기본계획(2026~2030) 수립과정에 정책의 당사자인 미래세대(10·20대)의 의견을 효과적으로 반영을 위한 소통채널 마련
- **(모집방법)** 온라인 공개 모집과 '24년 국민WE원회 참여자, '25년 정책 공모전 입상자 등으로 구성
- **(구성)** 만15~24세 전국 청년세대 250명(오프라인 50명, 온라인 200명)
 - 학교급, 성별, 운영방법별 구분, 거주지 등을 고려하여 대표성 확보
 - 정책에 대한 청년세대의 심층·정성적인 결과 도출과 대표성있는 의견 수렴을 위해 중·고등학생 100명, 대학생 150명 모집

【 미래세대 국민WE원회 구성(안) 】

	오프라인(50명)		온라인(200명)	
	남	여	남	여
중·고등학생(만15~18세)	10명	10명	40명	40명
대학생(만19~24세)	15명	15명	60명	60명

- **(역할)** 제5차 기본계획 작업본에 대한 정책숙의 토론(온·오프라인) → 「청년세대 평가보고서」 마련·제출 → 제5차 저출산·고령사회기본계획에 반영
- **(주요 활동일정(안))**
 - ① 미래세대 국민WE원회 공개모집^{5.30~6.20} 및 선발(6월)
 - ② 발대식 및 저출산·고령사회 정책현장 체험(7월)
 - ③ 정책숙의 토론회 개최(7월)
 - 저출생·고령화 대책 평가와 제5차 저출산·고령사회기본계획 내용 관련 정책수요자 의견 반영을 위한 토론회 개최
 - ④ 온라인 정책토론방 운영 및 온라인 활동(수시)
 - 신속성과 시의성 확보가 필요한 주제별 정책에 대한 평가 및 의견조사, 현안 등에 대한 토론 실시 등
 - ⑤ 정책 서포터즈 활동(온·오프라인, 수시)
 - 저출생·고령화 관련 간담회 참석, 주요 정책 및 위원회 활동 홍보 등

[참고] 2024년 국민WE원회 운영 결과

□ **(목적)** 저출생 대응 정책 수요자가 직접 정책을 점검·평가하고 개선방향을 제시하는 소통채널을 운영하며 이 과정을 홍보하여 정책의 수용성과 국민체감도 제고

□ **(구성)** 국민WE원 200인*, 청년WE원 120인

* ① 유자녀(1자녀, 2자녀 이상) 부부, ② 신혼·무자녀 부부, ③ 난임부부, ④ 2030 미혼청년

□ **(활동)** 출범식 포함 총 4회 토론회 실시, 온라인 정책소통 및 제안

□ **(주요 성과)**

○ 「저출생 추세 반전 대책(‘24.6월)」 중 6개 분야 총 96개 정책에 대한 실효성·체감도 평가 및 분야별 저출생 대책 국민 선호도 파악

→ 저출생 반전을 위한 추가대책 보완시 활용

○ 온라인소통 등을 통한 저출생 정책 제언

구분	제안 아이디어
최우수 정책 개선의견	1주일 단위로 사용할 수 있는 '단기육아휴직'
	틈새돌봄 활성화를 위한 지역돌봄센터 확충
	난임지원 소득제한 폐지
	분양주택 청약요건 완화
최우수 아이디어	결혼인센티브 강화
	저출생·고령화 지원정책 안내 온라인 플랫폼 구축
	아픈 아이 돌봄을 위한 정책 마련

○ 국민WE원 저출생 인식 개선¹⁾ 및 대국민 홍보²⁾

1) 저출생 정책 관심도 5.5%p, 인지도 22.5%p 상승하는 등 긍정적 인식 확대

2) 관련 보도자료 7건, 국민WE원회 활동과정 KBS 다큐 제작·방영

□ **(주요 활동사진)**

